

“해양과기원 구인난, 지역대 구직난... 市 등 반성을”

■ 김쌍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감사

“정치권 등 기관이전에 큰 관심 10년 간 활용·역할 부여엔 무심 해양특별지구 지정에 힘 모아야

부산영도구 동삼혁신지구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국책 해양 공공기관 13곳이 대거 이전했다. 이 가운데 혁신지구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박사 200명을 비롯해 연구 지원인력만 700여 명에 달하는 대형 연구기관이다. 2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쌍우(59) 상임감사로 부터 설립 50주년을 맞은 기관의 역할 등을 들어봤다.

김 감사는 “해양수산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18년 경기도 안양시에서 부산 영도구로 본원을 이전했고, 대전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인천에 남·북극을 연구하는 극지연구소 등을 두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남태평양 등 전세계 해양의 모든 것을 연구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종합해양연구소”라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 기관은 ‘바다에서 찾는 국민의 행복, 인류에 공헌하는 해양과학기술’이라



김쌍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감사사가 감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영훈 기자

는 비전을 내걸고 해양과학기술의 창의적 연구부터 응용과 실용화, 우수 전문인력 양성 등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을 선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지역 선출직 정치인 출신인 김 감사는

“본원의 한 해 집행 예산이 1600억 원에 달한다. 아무래도 내부 출신이 아니어서 인맥이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기에 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시의회와 기관총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을 한 경험을 토대로 감사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후적발식”의 감사보다는 구성원들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법률 문제를 미리 고지해 위협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예방 통제식’ 감사에 나서겠다”며 “아울러 수평적 조직으로 발달한 연구기관의 업무 특성을 감안해 자율적인 업무환경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게 감사 업무의 기초”라고 부연했다.

부산장안고와 부산대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김 감사는 5, 6대 기관총회의 의원을 거쳐 7대 부산시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과학 기술분과 지문위원을 맡았으며, 지난해 9월 해양과학기술원 감사로 부임했다.

김 감사는 국제신문의 신년 기획시리즈 ‘영도, 먼저 온 부산의 미래’ 보도와 관련, “도심 소멸에 직면한 영도구에 있는 핵심 기

관 관계자면서 동시에 전직 부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참 애석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영도구의 교통·교육 환경은 매우 취약하고, 이로 인해 정주여건이 좋지 않다는 게 동삼혁신지구에 이전한 연구기관 직원들의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본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어느덧 동삼혁신지구에 공공기관이 이전을 시작한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영도구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부산지역 대학생들은 취업할 데가 없어서 안달인데, 연구원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난리”라며 “그런 점에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이 동삼혁신지구 내 연구기관과 한국해양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대학 사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감사는 “부산시와 영도구, 부산 정치권은 이들 기관이 이전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이전 이후 이들 기관을 활용하거나 어떤 역할을 부여할지 등에 무심했다고 봐야 한다”며 “부산시와 영도구는 집적화한 해양연구기관, 한국해양대, 수리조선 등 산업기반을 충동원해 영도구가 해양특별지구로 지정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성문 창립 20돌 기념 초록우산에 물품 지원

부산 중견 종합건설사 ㈜대성문(사진·대표이사 채창호)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2일 ㈜대성문은 부산 영도구 라발스호텔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대성문 전 계열사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승진 및 장기 근속 직원의 공로상 수여와 포상 등이 진행됐다. 채창호 대표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처음 마음 끝까지 소탐대실”을 사훈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달려온 20년 역사다. 임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기업이 되자”고 밝혔다. 이날 대성문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부산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2003년 설립한 대성문은 건축 도목 주택 개발 호철 등 건설업은 물론, 최근 핀테크 사업으로 대표되는 금융 분야에 진출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도 나서고 있다. 실제 부산항 대표 호텔로 자리 잡은 ‘라발스호텔’,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사 ‘타이탄인베스트’, 스페인 최고 올리브 브랜드 ‘라치나타코리아’ 설립을 연이어 성공시켰다.



박호철 기자 rafael@kookje.co.kr

인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감사실장 김미경 ▷예산경영실장 이정현 ▷성과홍보실장 이재영 ▷행정지원실장 성무석

◇부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장 이진화 ▷예술대학장 박은주 ▷생명자원과학대학장 박현철 ▷의과대학장 장철환 ▷치의학전문대학원 김용덕 ▷교육지원부처장 최진혁 ▷대학원부원장 김규정 ▷연구실안전관리센터장 김재혁

◇동서대학교

▷일반대학원장 임호택 ▷교무처장 김영 ▷입학처장 엄승섭 ▷학생·취업지원처장 정도운 ▷산학협력단장 황기현 ▷민석도서관장 이현숙 ▷교무부처장 성지경 ▷국제 제1부처장 윤용수 ▷학생·취업지원 제1부처장 김성겸

화족

▶백성영 장해연 씨 장남 창훈(국제신문 스포츠팀 기자) 군, 조운용 유해수 씨 차녀 혜경(동아대병원 간호사) 양·5일 오전 11시 부산 해운대구 그랜드블랑 8층 미라벨가든. (051)743-3733

부산적십자, 어려운 이웃에 영양제 지원... 고려은단 등 후원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서정의)는 최근 지역 내 어려운 이웃(홀몸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해 비타민C 음료 21만병과 종합비타민 1만통(약 2억 원 상당)을 지원(사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지원된 비타민음료는 고려은단(주)과 고려은단헬스케어에서 후원한 것으로, 부산국제장애인협회(회장 장애인) 및 부산노인복지협의회(회장 양영희)를 비롯해 부산지역 내 저소득층에게 지원된다.

부산적십자사 서정의 회장은 “지역내 장애인과 홀몸어르신,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들의 비타민 영양보충을 위해 고려은단 후원으로 영양제를 지원하게 됐다. 앞으로



도 어려운 이웃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여러모로 부산적십자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

다”며 부산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나눔의 실천을 부탁했다.

최영지 기자

박정석 고려해운 회장 한국해양대서 명예박사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도덕희)는 지난달 27일 해사대학 신관 세미나실에서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사진)을 열고 고려해운 박정석 회장에게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박정석 회장은 2007년 고려해운 대표이사 사장으로 부임하며 기업 가치를 키웠다. 솔선수범의 자세로 수준 높은 인재 양성에 힘썼으며 고려해운을 세계 14위 컨테이너 선사로 성장시키는 등 성과를 거뒀다. 38년 연속 흑자라는 경이로운 경영 실적을 내며 업계 전반의 발전을 이끌어왔으며 최근에는 자체 IT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만족에도 앞장서고 있다.



도덕희 한국해양대 총장은 “박정석 회장은 해운업계의 유례없는 경영 성과를 실현하고 계시는 정년들의 본보기와도 같은 분”이라며 “앞으로도 자금처럼 청년들의 ‘멘토’가 되어주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명예박사학위 수여가 앞으로도 박정석 회장님이 지속적으로 국가 발전을 선도해 나가시는 데 큰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려해운은 일본 중국 동남아 러시아 인도 중동 등에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중견 해운사다. 1954년 창립돼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오고 있다. 외항 화물 운송업을 주력 사업으로 펼쳐오고 있으며, 현재 해운과 IT를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쉽고 편리한 온라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동아대 등 졸업생 12개 브랜드, 대형 쇼핑몰 입점

동아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학과장 이선희)는 최근 졸업생 디자이너 브랜드 6개를 포함한 부산 지역 디자이너 브랜드 연합 매장을 부산 지역 한 대형 쇼핑몰에 오픈(사진)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 사하구 하단동 아트몰링(대표이사 최병오)에 최근 오픈한 하이엔드 스트리트 패션 셀렉샵 ‘크루소(Crusor)’는 부산 지역 고감도 하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을 선보인다.

입점한 브랜드는 ‘넥스트도어립스’와 ‘공인공사’ ‘레이크랙’ ‘체메씨’ ‘온리아이그 지스트’ ‘이레플라’ ‘유심’ ‘디아렘’ ‘벤에시’ ‘로익’ ‘랜들라인’ ‘헬릭스클로딩’ 등 12개다.

해당 브랜드는 최근 10년 사이 동아대를 비롯해 부산 지역 패션 관련 학과 졸업생들이 창업한 브랜드로 셀렉샵 ‘크루소’ 역시



동아대 졸업생들이 공동 창업한 유통 브랜드다.

셀렉샵 크루소는 20-30대를 중심 소비자로 삼아 이들의 니즈 및 국내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브랜드 선택과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고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동아대 패션디자인학과와 아트몰링 측은 산학협력을 통해 매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디자이너 역량과 제품 품질은 뛰어나지만 오프라인 매장을 찾기 힘든 신진 디자이너들을 위해 상설 오프라인 매장을 지원, 신진 디자이너 육성 및 지역 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최영지 기자

제보전화 : (051)500-5145 이메일 : opinion@kookje.co.kr



K-water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과 부산시 및 부산지역 환경단체는 지난 달 27일 에코델타시티 습지생태공원에서 겨울철새 먹이나눔 활동을 했다.



부산 수영구 광안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묘경)는 최근 반찬기게 ‘매일 집밥’ (대표 홍순오)과 ‘전란한 밥상’ 반찬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부산 동구(구청장 김진홍) 수정5동은 최근 다가오는 4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부산방문을 앞두고 주민 응원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국제로타리3661지구 부산내성로타리클럽(회장 오용용)은 최근 쌀 100kg과 현금 50만 원을 물مان골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부산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지난달 28일 노후잡지페어 제정비 ‘녹색아이디어 발굴’ 선정작품 참여 학생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부산 영도구 남항동 집수리 봉사단체 영도하나회(회장 신양우)는 지난달 26일 남항동 저소득 어르신 댁을 방문해 도배·장판 교체 봉사활동을 했다.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지난 1월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 20명이 참여한 기념행사를 갖고 순국선열의 뜻을 기렸다.